

국내 보건간호원 실태조사

1974년도

崔 良 子
 <본회간호업무부장>

■ 차 례 ■

- I. 서 론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III. 조사결과
 - I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I. 서 론

현대간호의 이념은 과거 질병치료 중심의 간호로부터 인간중심의 질병예방, 건강증진으로 변천되었고 사회에서의 간호요구가 보다 차원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간호분야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음에 비추어 지역사회의 국민보건에 가장 인접해있는 보건간호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 하므로써 앞으로 그들이 국민보건기여에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문제해결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본조사의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이 조사연구가 보건분야에 관심있는 회원들에게 참고자료로 제공되기를 바란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A. 조사대상

전국 192개 보건소를 대상으로하여 서울을 포함 시, 군보건소에 설문지 1부씩 배부 응답회수는 132부였다.

B.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실태조사서를 사용하였고 1974년 5월~7월에 걸쳐 3개월 동안 조사집계 되었다.

III. 조사결과

전국 조사대상 보건소분포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1 참조).

표 1) 지방별로 본 보건소명

I Table) The names of Health Center according to the province.

도 별	보 건 소 명	도 별	보 건 소 명
서 울	종로구보건소	강 원 도	여주군보건소
	중 구보건소		평택군보건소
	동대문구보건소		화성군보건소
	성동구보건소		시흥군보건소
	성북구보건소		부천군보건소
	서대문구보건소		파주군보건소
	마포구보건소		고양군보건소
	용산구보건소		광주군보건소
	영등포구보건소		연천군보건소
	부 산		중구보건소
서구보건소	가평군보건소		
동구보건소	양평군보건소		
영도구보건소	이천군보건소		
부산진구보건소	용인군보건소		
동래구보건소	안성군보건소		
경 기도	인천시보건소	김포군보건소	
	수원시보건소	강화군보건소	
	의정부시보건소	용진군보건소	
	양주군보건소	춘천시보건소	

충 북

원주시보건소
 장릉시보건소
 속초시보건소
 문성군보건소
 홍천군보건소
 횡성군보건소
 원성군보건소
 영월군보건소
 평창군보건소
 정선군보건소
 철원군보건소
 화천군보건소
 양구군보건소
 인제군보건소
 고성군보건소
 양양군보건소
 명주군보건소
 삼척군보건소
 청주시보건소
 흥주시보건소
 청원군보건소
 보은군보건소
 옥천군보건소
 영동군보건소
 진천군보건소
 괴산군보건소
 음성군보건소
 증원군보건소
 제천군보건소
 단양군보건소
 매천시보건소
 천안시보건소
 금산군보건소
 대덕군보건소
 연기군보건소
 공주군보건소
 논산군보건소
 부여군보건소
 서천군보건소
 보령군보건소
 청양군보건소
 홍성군보건소
 예산군보건소
 서산군보건소
 당진군보건소
 아산군보건소
 천원군보건소

충 남

전 북

전주시보건소
 군산시보건소
 이리시보건소
 완주군보건소
 진안군보건소
 무주군보건소
 장수군보건소
 임실군보건소
 남원군보건소
 순창군보건소
 정읍군보건소
 고창군보건소
 부안군보건소
 김제군보건소
 옥구군보건소
 익산군보건소
 광주시보건소
 목포시보건소
 여수시보건소
 순천시보건소
 광산군보건소
 담양군보건소
 곡성군보건소
 구례군보건소
 광양군보건소
 여천군보건소
 승주군보건소
 고흥군보건소
 보성군보건소
 화순군보건소
 장흥군보건소
 강진군보건소
 해남군보건소
 영암군보건소
 무안군보건소
 나주군보건소
 함평군보건소
 영광군보건소
 광성군보건소
 완도군보건소
 진도군보건소
 신안군보건소
 대주시보건소
 포항시보건소
 경주시보건소
 김천시보건소
 안동시보건소

전 남

경 북

달성군보건소
 군위군보건소
 의성군보건소
 안동군보건소
 청송군보건소
 영양군보건소
 영덕군보건소
 영일군보건소
 월성군보건소
 영천군보건소
 경산군보건소
 청도군보건소
 고령군보건소
 성주군보건소
 칠곡군보건소
 금릉군보건소
 선산군보건소
 상주군보건소
 문경군보건소
 예천군보건소
 영주군보건소
 봉화군보건소
 울진군보건소
 울릉군보건소
 마산시보건소
 진주시보건소
 통무시보건소

경 남

진해시보건소
 삼천포시보건소
 울산시보건소
 진양군보건소
 의령군보건소
 함안군보건소
 창녕군보건소
 밀양군보건소
 양산군보건소
 울주군보건소
 동래군보건소
 김해군보건소
 창원군보건소
 통영군보건소
 거제군보건소
 고성군보건소
 사천군보건소
 남해군보건소
 하동군보건소
 산청군보건소
 함양군보건소
 거창군보건소
 함천군보건소
 제주시보건소
 북제주군보건소
 남제주군보건소

제주도

A. 보건간호원의 일반사항

1. 연령별 현황
 보건소 간호원의 연령은 30~34세가 43명 (32.6%), 35~39세가 29명 (22%)이고, 30~59세 사이가 93명으로 전체의 70%를 점하고 있다. (표 2-1 참조)

표 2-1) 연령별 현황
 II Table 1) The present condition by age group

연령별	20~	25~	30~	35~	40~	45~	50~	55~	계
실수 및 %	24	29	34	39	44	49	54	59	
실 수	16	23	43	29	14	6	—	1	132
%	12.1	17.4	32.6	22.1	10.6	4.5	—	0.8	100

2. 결혼관계
 응답자 132명중 기혼자가 111명 (84.1%) 미혼이 21명 (15.9%)였다. (표 2-2 참조)

표 2-2) 결혼관계

II Table 2) The status of marriage

결혼관계	기혼	미혼	계
실수및%			
실 수	111	21	132
%	84.1	15.9	100

B. 교육현황

1. 간호교육

간호교육은 고등기술학교 출신이 85명, (64.4%), 간호학교 및 전문학교 출신이 44명 (33.3%) 검정출신이 2명 1.5%, 학과출신이 1명 0.8%였다. (표3 참조)

표 3) 학력별 현황

III Table) The present condition by school career.

간호학교별	검정출신	간호기술학교	간호학교 및 전문학교	간호학과 대학	계
실수및%					
실 수	2	85	44	1	132
%	1.5	64.4	33.3	0.8	100

2. 추후교육

간호교육을 받은후 추후로 받은 교육으로는 C.P.H.N 수료자가 22명, 타계의 대학출신이 6명 있었다.

C. 실무 교육현황

1. 각보건소에서 실무교육이 실시되는지의 물음에 실시한다가 77명 (58.3%), 실시하지 않는다가 48명 (36.4%)였고 실시한다면 어떤방법으로 진행되는지의 물음에 매월실시한다가 45명 (58.4%), 필요시한다가 26명 (33.8%), 분기별로 한다가 4명 (5.2%), 기타 2명 (2.6%)의 비율을 보여 주었다. (표 4-1, 2 참조) 또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행정자의 이

표 4-1) 실무교육 실시여부

IV Table 1) In operation or not of the practical training.

실시여부	예	아니요	기타	계
실수및%				
실 수	77	48	7	132
%	58.3	36.4	5.3	100

해부족 26명 (54.1%), 진행할 사람이 없어서가 13명 (27.1%), 기타 6명 (12.5%) 필요없어서가 3명 (6.3%)이었다(표 4-3 참조).

표 4-2) "예"일 경우 어떻게

IV Table 2) Anyhow in case of 'Yes'

어떻게	매월	분기별	필요시	기타	계
실수및%					
실 수	45	4	26	2	77
%	58.4	5.2	33.8	2.6	100

표 4-3) "아니오"일 경우 그 이유

IV Table 3) Any reason in case of 'No'

이유	행정자의 이해 부족	필요없어서	진행할 사람이 없어서	기타	계
실수및%					
실 수	26	3	13	6	48
%	54.1	26.3	27.1	12.5	100

2. 세미나, 강습회, 보건간호원 훈련등의 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는나의 물음에 기회가 부여된다가 115명 (87.1%), 부여되지 않는다가 9명 (6.8%), 기타 8명 (6.1%)였다. (표 5-1 참조)

참석기회가 부여된다면 어떻게 부여되는나의 물음에 경우에 따라서 61명 (53%), 1년에 1회 44명(38%), 1년에 1~3회 정도가 10명 (8.8%)였다. (표 5-2 참조)

표 5-1) 특수 교육기회부여 여부 (세미나, 강습회, 보건간호원 훈련등)

V Table 1) Investment or not of the chance in special training (Seminar, A short training course, Training course of P.H.N. etc.)

실시여부	예	아니요	기타	계
실수및%				
실 수	115	9	8	132
%	87.1	6.8	6.1	100

표 5-2) "예"일 경우 어떻게

V Table 2) Anyhow in case of 'Yes'

어떻게	1년에1회	1년에 1~3회	경우에 따라서	계
실수및%				
실 수	44	10	61	115
%	38	8.8	53	100

가 화도 보내주지 않는다 7명 (77.8%), 기타 2명 (22.2%)였다(표 5-3 참조)

표 5-3) “아니오”일 경우 그 이유
V Table 3) Any reason in case of 'No'

이유 실수및%	기회가와 도보내주 지않음	잘필요 가없어	기타	계
실 수	7	—	2	9
%	77.8	—	22.2	100

3. 이상과 같은 계속교육이 개인발전과 현직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의 물음에 예 121명 (92%), 아니오 2명 (8%)였다.

D. 경력 현황

보건소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 32명 (24.2%), 5~10년 미만 27명 (20.5%), 1년미만이 25명 (18.9%), 1~2년이 19명 (14.3%) 2~3년이 17명 (12.9%) 3~4년과 4~5년이 각 6명 (4.6%)였다(표 6-1 참조)

또한 보건소 이외의 경력으로는 임상, 학교보건, 산업장, 조산원등으로 나타났다(표 6-2 참조)

표 6-1) 경력별 현황

VI Table 1) The present condition of personal career (in Health Center)

경력별 실수및%	1년 미만	1~2 년	2~3 년	3~4 년	4~5 년	5~10 년 미만	10년 이상	계
실 수	25	19	17	6	6	27	32	132
%	18.9	14.3	12.9	4.6	4.6	20.5	24.2	100

표 6-2) 기 타

VII Table 2) The present condition of personal career (in the Other Organ)

경력별 분야 및 실수	1년 미만	1~2 년	2~3 년	3~4 년	4~5 년	5~10 년 미만	10년 이상
임 상	16	22	14	16	17	14	4
학 교 보 건	3	2	1	1	2	—	—
산 업 장	1	2	3	1	2	1	—
조 산 원	1	2	—	2	2	5	2

또한 해외취업 경험으로는 월남 2명 각 6개월 혹은 1년, 서독 2명 각 3년씩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E. 직급현황

보건소 간호원의 현직급은 5급율이 77명 (58.3%), 입시직 23명 (17.4%), 5급잡 16명 (12.1%), 4급을 12명 (9.1%), 4급 잡 3명 (2.3%), 3급을 1명 (0.8%)였다, (표 7참조)

표 7) 현직급 현황
VII Table) The present position

직급별 실수및%	입시 직	5급 율	5급 잡	4급 율	4급 잡	3급 율	3급 잡	계
실 수	23	77	16	12	3	1	—	132
%	17.4	58.3	12.1	9.1	2.3	0.8	—	100

F. 기 타

1. 보건소에 취업하게된 동기는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어서 43명 (32.6%), 보건분야가 적성에 맞아서 41명 (31.1%), 출퇴근이 정구적이므로 36명 (27.2%), 기타 12명 (9.1%)였다. (표 8-1 참조)

표 8-1) 보건소 근무를 희망하게된 동기

VIII Table 1) The motive about selection of Health Center.

동기별 실수및%	출퇴 근이 정구 적이 므로	국민 보건 에 기여 할수 있어 서	보건 분야 적성 에 맞 아	기 타	계
실 수	36	43	41	—	12
%	27.2	32.6	31.1	—	9.1

2. 보건소에 취업할 당시 그 방법으로는 개인이 직접취업했다가 66명 (50%), 친지의 소개가 35명 (26.5%), 관계부처의 발령을 받고 31명 (23.5%)였다, (표 8-2 참조)

표 8-2) 보건소 취업방법

VIII Table 2) The method of employment in Health Center

방법별 실수및%	관계 부처 의 발령 을 받 고	친지 의 소 개 로	개인 이 직 접	계
실 수	31	35	66	132
%	23.5	26.5	50	100

3. 타분야에 전직을 희망하느냐의 물음에 희망한다 82명 (62.1%), 안한다 39명 (29.1%), 무응답 11명 (8.3%)이었다, (표 9-1 참조) 또

희망한다일 경우 그 이유로 보수가 낮아서 60명 (45.5%), 전문직 활동의 불만 13명 (9.8%), 행정자에 대한 불만 10명 (7.6%), 사회인식불만 9명 (6.8%), 간호보조원과의 부조화 4명 (3.0%), 해외취업 2명 (1.5%)로 나타났다. (표 9-2 참조)

표 9-1) 타분야의 전직 희망관계
IX Table 1) The desirable problem about change of employment to the other organ

희망별 실수및%	희망한다	안한다	무응답	계
실 수	82	39	11	132
%	62.1	29.1	8.3	100

표 9-2) “희망한다” 일 경우 그 이유
IX Table 2) Any reason in case of 'Yes'

희망이유 실수및%	보수가 낮아서	전문 직활동 의 불만	사회 인식 불만	행 정 자 의 불 만	간 호 보 조 원 과 의 부 조 화	해 외 취 업	기 타	계
실 수	60	13	9	19	4	2	34	132
%	45.5	9.8	6.8	7.6	3.0	1.5	25.8	100

4. 만일 전직을 희망할 경우 희망분야로는 임상이 26명 (31.7%), 학교보건 21명 (25.6%), 산업장 20명 (24.4%), 정신과 4명 (4.9%), 마취과 3명 (3.7%)를 나타내고 있고 (표 9-3 참조) 그 이유로는 보수가 높아서 35명 (42.8%), 개인발전을 위하여 32명 (39%), 사회인식이 좋아서 11명 (13.4%), 분야별 간호원이므로 2명 (2.4%)이었다. (표 9-4 참조)

표 9-3) 전직 희망 분야
IX Table 3) The other field of the desirable change of employment

분야별 실수및%	임상	학교 보건	산 장 부 실	업 장 의 실	간 호 교 과	정 신 과	마 취 과	기 타	계
실 수	26	21	20	-	4	3	8	82	
%	31.7	25.6	24.4	-	4.9	3.7	9.7	100	

표 9-4) 그 이유
IX Table 4) Any reason in case of selected organ

희망이유 실수및%	개 인 발 전 위 하 여	보 수 가 높 아 서	사 회 인 식 이 좋 아 서	법 적 인 보 조 원 이 아 니 라 고 생 각 하 고 있 다	기 타	계
실 수	32	35	11	2	2	82
%	39.0	42.8	13.4	2.4	2.4	100

5. 끝으로 보건간호원의 입장에서 보건간호사 업 수행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적급의 개선 112명, 행정체제의 일원화 76명, 보수교육 61명, 간호보조원과의 부조화 61명, 기타 1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표 10 참조)

표 10) 보건사업 수행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
X Table) The matters for improvement in performance of Health Service

개선사항 실수	행 정 체 제 의 일 원 화	적 급 의 개 선	보 수 교 육	간 호 보 조 원 과 의 부 조 화	기 타
실 수	76	112	61	61	1

IV. 결론 및 제언

A. 결 론

본조사연구는 전국에 192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보건간호원의 연령은 30~34세가 43명 (32.6%) 30~39세가 93명으로 전체의 70%를 보여주고 있어 본인이 1973년도 임상 간호원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연령군과 (20~24세가 56.4%) 비교해서 보건분야는 임상보다 연령군이 높음을 알 수 있겠다.

2. 결혼관제도 거의가 (84.1%) 기혼자였다.

3. 교육배경으로는 간호고등기술 학교가 85명 (6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간호학교및 전문학교가 44명 (33.3%)였으며 학사 출신은 단 1명 (0.8%)였다. 또한 추후 교육은 C.P.H.N이외엔 특별한 교육경험이 없었다.

4. 보건소 자체내의 실무교육은 실시한다가 77명으로 (58.3%) 전체의 반이상이 실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불배 실시하지 않는 이유중 행정자의 이해부족이 26명 (54.1%)로 나타나고 있어 전문직업의 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못하는 행정자가 많음을 알 수 있겠다. 또한 진행할 사람이 없어서 라는 응답자가 13명 (27.1%)로 보건소내의 간호원의 적정인원 배치가 잘되고 있지 않음이 지적된다.

5. 외부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강습회, 보건간호원 훈련등의 재교육의 기회는 87.1%나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여기서 자체내의 실무교육보다는 외부에서의 기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이상의 교육이 개인발전과 현직장에 도움이 되는지는 물음에 92%가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교육의 기회가 더욱강화되어야겠다.

7. 보건소 간호원들의 경력은 3~10년 이상이 71명(54%)로 타분야 또는 보건소내의 경력이 높은 편이었다.

8. 보건소 간호원의 현직급은 5급을 이 77명(58.3%), 임시직 23명(17.4%)로 최하직급에 속하는 간호원이 전체의 100명(75.7%)에 해당하고 있다. 이가운데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도 포함된 것을 생각할때 전직 희망율이 높은 이유를 또한 알 수있겠고 승진의 기회가 없으므로 오는 시기적 하로 인하여 보건업무수행의 많은 영향이 미치리라고 지적된다.

9. 보건소취업 동기가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다. 43명(32.6%), 보건분야가 적성에 맞아서 41명(31.1%)로써 전전한 동기로 취업한것이 84명(63.6%)를 보여주고 있음은 전문직 간호원으로써의 마음가짐이 옹게 반영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보건소 취업방법은 개인이 직접 66명(50%)이다.

10. 타분야의 전직희망은 82명(62.1%)이 희망하고 있고 그 이유로 보수가 낮음을 지적(45.5%)하고 있다. 이는 또한 승진의 혜택이 없음에서 오는 영향도 크리라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지역사회 보건간호사업의 경중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다좋은 조건이 개선될 경우 취업동기에 비추어 전직희망율이 저하되리라 믿어진다.

11. 전직을 희망할 경우 그 분야로 임상 26명(31.7%), 학교보건 21명(25.6%), 산업장 20명(24.4%)였다. 그 분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보수가 높아서 35명(42.8%)로써 보건소보다 타분야가 경제적 대우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12. 보건간호원의 입장에서 보건간호업무수행

상 개선되어야 할점으로는 직급의 개선, 행정체계의 일원화, 보수교육을 들이고 있다.

이상에서 보건소간호원의 연령, 교육배경, 경력사항, 재교육희망 등이 1971년 김주희외 2인 「서울시내 일부 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원의 배경실태조사」에서와 비슷한 결론을 얻었다.

또한 본조사를 통하여 본인은 아래 몇가지를 제언, 시정방안을 밝히면서 이의 시정이 시급히 행정당국에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B. 제 언

1. 보건간호원으로 취업한 동기를 살려주어 그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 전직의 희망을 낮추어 이직율을 감소시킴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사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는

- a. 직급의 개선
- b. 간호직수당 책정
- c. 별지수당 지급
- d. 승진의 기회를 부여해야겠다.

2. 직급의 개선과 아울러 보건간호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을 의무화 하므로써 자격의 계속개발과 현대적인 간호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 해야겠다.

3. 행정체계의 일원화로서 전문직의 위치와 임시직 및 단기훈련자의 위치가 명백해야만 조직적인 보건간호업무수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겠다.

참고문헌

1. 김주희외 2인 “서울시내 일부보건소에서 일하는 간호원의 배경실태조사” 대한간호 Vol.10, No.3, 1971년
2. 전산초 “전인 간호의 임상학적 분석과 실험에 관한연구” 간호학회지 Vol.4 No. 1 1974년
3. 소속정 “중앙실부 교육실태, 대한간호 Vol. 10, No. 5, 1971년
4. 전산초 “변천하는 사회와 현대간호의 경향, 대한간호 Vol. 7, No6 1968년